

## 리오 쿠아르토 선언문 (2003년)

이 글을 첫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해방철학 선언문 30주년을 맞이하여 1970년대 초 아르헨티나에서 해방철학운동을 시작한 철학자들이 현재의 세계 상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선언문이다.

원제: Manifiesto de Río Cuarto

출처: <http://www.afyl.org/manifiesto-rio-cuarto.html>

‘해방철학 선언문’(1973년)을 발표한 지 삼십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 서명에 참여했던 우리는 아르헨티나 리오 쿠아르토(Río Cuarto)에 모였다. 이 해방철학 운동의 설립 정신에 고무되었던 우리는 현재 아르헨티나,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 상황을 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우리는 실질 경제와 노동을 투기 자본에 종속시키고, 우리를 제국적이며 초국적인 권력에 더욱 더 옹아매는 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을 거부한다.

우리는 구조적 실업과 점증하는 가난한 대중과 부자들 간 심화되는 간극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는 사회적, 젠더적,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등등, 모든 종류의 배제를 단죄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자치적 결정을 방해하는 모든 형태의 간섭주의와 봉쇄, 강제적 개입을 단죄한다.

시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중매체에 의해 조장되는 세계의 단일 문화

화 과정 앞에서, 우리는 고유한 자신들 만의 정체성을 형성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긍정한다.

라틴아메리카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다른 세상은 다양한 운동의 발현으로 표현되는 창조적 저항 때문에 가능하다.

세계와 라틴아메리카 통합과 평화를 우리의 소명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한다.

철학자로서 우리는 이 선언들이 함축하는 정치적·윤리적 선택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해방철학이 이러한 역사적 도전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공헌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2003년 11월 7일, 아르헨티나의 리오 쿠아르토에서 ‘독일-라틴아메리카 문화 교류’ 협회가 주관한 모임에서 서명함.

서명자:

알베르토 파리시(Alberto Parisi)

엔리케 두셀(Enrique Dussel)

오라시오 세루티(Horacio Cerutti)

후안 카를로스 스카노네(Juan Carlos Scannone)

안토니오 키넨(Antonio Kinen)

아니발 포르나리(Aníbal Fornari)

마리오 카사야(Mario Casalla)

카를로스 쿨렌(Carlos Cullen)

홀리오 데 산(Julio de Zan)

아르투로 로이그(Arturo Roig)

[조영현 옮김]